

# 조지 린드벡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 비평

## A Critical Evaluation of George Lindbeck's Cultural-Linguistic Theory of Religion

제해종  
삼육대학교 신학과

Haejong Je(jehaejong@hotmail.com)

### 요약

본 연구는 종교를 문화-언어로 이해한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인식-명제적 접근과 자유주의의 경험-표현주의적 접근이 포스트모던적 종교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인식한 조지 린드벡은 기존의 두 접근법들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문화-언어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가 가진 첫 번째 통찰은 종교를 문화나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듯 종교에도 익숙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 통찰은 첫 번째 것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교리를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종교와 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이는 각각의 종교가 마치 언어에 종교 나뭇잎이나 울고 그림이 없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체계 안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이 종교 상호간에 화해를 가능케 하고, 실행성을 강조하고, 또 성경을 권위 있는 신학적 텍스트로 삼았다는 점은 중요한 기여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 자체보다는 교회의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진리를 내적 일관성으로 격하시켰고, 모든 종교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와 언어가 종교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엘리트주의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신학적 종말론을 주장함으로써 명제주의로 회귀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린드벡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을 신학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다.

■ 중심어 : | 조지 린드벡 | 후기자유주의 | 문화-언어적 접근 | 규칙이론 | 체계내적 진리 | 본문내적 해석학 |

### Abstract

This is a study of George Lindbeck's postliberalism that views religion as a cultural-linguistic approach. Knowing that the conceptual-propositional approach of the traditional Christian theology and the experiential-expressive approach of liberalism cannot be a solution for the post-modern religious phenomenon, George Lindbeck proposes an alternative. He proposes a cultural-linguistic approach to overcome the previous approaches. The first insight of Lindbeck's postliberalism is to understand religion as culture or language, because human beings become acquainted with a religion as they learn a language. The second insight comes out of the first, to understand doctrine as grammar. If we understand religion and doctrine this way the troubles and conflicts among religions will be resolved naturally, because each religion can be interpreted in its own system just as a language cannot be said to be good or bad, right or wrong.

This approach makes several contributions as follows: it promotes a dialogue among religions, it emphasizes practice; and it preserves the Bible as an authoritative theological text. However it also brings many limitations as follows: it emphasizes the church's 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 text's own interpretation; it views the truth simply as coherence; it promotes radical relativism and elitism; and through theological eschatology he makes his theory return to a propositionalism. Accordingly, the researcher concludes that Lindbeck's cultural-linguistic theory of religion is not an alternative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ological conservatism and liberalism.

■ keyword : | George Lindbeck | Postliberalism | Cultural-linguistic Approach | Rule Theory | Intrasystemic Truth | Intratextuality |

\* 이 논문은 2013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3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4월 08일

수정일자 : 2014년 04월 07일

교신저자 : 제해종, e-mail : jehaejong@hotmail.com

## I. 서론

후기자유주의(postliberalism)는 포스트모던 상황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신학의 화두인 ‘타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까지 아우르는 에큐메니즘을 목적으로 등장한 신학적 접근이다[1].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 예일대 신학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후기자유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예일 학파’로 부르기도 하며 이들이 역사나 진리 자체보다 성서의 이야기를 더 중시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야기 신학자들’(narrative theologian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후기자유주의는 종교를 문화-언어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교리를 문법-규칙으로 이해한 조지 린드백의 『교리의 본질: 후기자유주의 시대의 종교와 신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린드백은 『교리의 본질』에서 기독교가 가진 배타주의, 포괄주의를 주로 다루는데 이는 결국 이들 두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다원주의 모델까지 극복하기 위함이었다[2]. 본 논문이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문화-언어적 접근법이 여러 종교와 문화 간의 갈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신학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포스트모던적 대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3].

『교리의 본질』에서 린드백은 신학의 두 접근법들 중 첫 번째의 전통적인 보수주의를 인식-명제주의(cognitive-propositional) 접근, 두 번째의 자유주의를 ‘경험-표현주의’(experiential-expressive) 접근이라고 칭했다[4]. 전자는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이며 명제적인 진리를, 후자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종교 경험을 강조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인식-명제주의 모델에서 교리는 객관적인 실재에 대한 동의로 표현될 수 있다. 인식-명제주의자들은 “교리가 한 때 참이었다면 그 교리는 항상 참이며, 그것이 한 때 거짓이었다면 항상 거짓이다.”라고 말한다[5].

경험-표현주의 모델은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어마허에 의해 주도된 신학적 입장에서 ‘감

정’과 같은 인간의 경험을 종교의 본질로 본다. 린드백은 이 모델의 대표적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로너간(Bernard Lonergan)의 표현을 빌어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핵심 경험(a common core experience)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라고 보았다. 모든 종교가 공통된 핵심 경험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지만, 이런 종교적 경험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 로너간의 경험-표현주의의 입장이다[6].

린드백은 이런 두 모델이 포스트모던적 시대상과 부합되지 않다는 전제하에 제3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될 후기자유주의, 곧 ‘문화-언어적’ 접근법이다. 린드백은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종교들 사이의 차이를 더 잘 극복함으로써 종교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한다고 보았다. 린드백이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을 통해 종교를 문화나 언어로 이해하면서 교리를 문법이나 규칙으로 보는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을 도출해냈다.

본 논문은 린드백이 제시한 문화-언어의 종교이론과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이 인식-명제주의(보수주의)와 경험표현주의(자유주의) 신학 모델의 한계를 실제로 극복하는 진정한 대안인지 여부를 『교리의 본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후기자유주의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 II. 종교와 교리에 대한 기존의 두 모델

### 1. 인식-명제주의 이론

린드백이 종교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문화-언어의 종교이론과 그에 따른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으로 대표되는 후기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분석하고 비평한 기존의 두 모델, 곧 인식-명제주의 접근법과 경험-표현주의 접근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식-명제주의는 이미 언급한 대로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복음주의도 여기에 해당하며, 이것은 교리를 객관적인 실재와 결부시켜서 이해한다. 이 모델은 기독교의 본질을 명제적인

교리들로 본다. 린드백은 이 모델이 “종교의 인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또 “교리를 객관적인 실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들 혹은 진리 주장들”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7]. 이런 이해에 따르면 종교는 과학이나 철학 등과 같은 학문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는 자아와 세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명제적 진술로 간주된다.

이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철학적 입장은 바로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인데, 이는 중세 스콜라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리는 실재와 지성의 일치”(adaequatio mentis ad rem)임을 강조한다[8]. 진리의 대응이론은 인간의 인식이나 그 인식을 표현한 언어가 객관적 실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실재를 그대로 반영한 진술을 진리로 간주한다. 즉 이것은 “어떤 믿음(진술, 문장, 명제 등)은 그것에 대응하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진리이다.”라고 말한다[9]. 린드백은 인식-명제주의 이론이 이런 대응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종교의 교리가 신적 실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종교는 교리로 설명될 수 있고, 또 그 교리는 객관적 진리로 인정된다.

린드백에 따르면 인식-명제주의의 문제점은 교리의 경직성 때문에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명제는 타 종교와의 진정한 대화를 원천 봉쇄한다. 예수만이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면 개종을 전제하지 않은 타 종교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린드백의 입장이다.

## 2. 경험-표현주의 이론

린드백이 분석하고 제시한 종교와 교리에 관한 두 번째 이론은 경험-표현주의 접근법인데, 이것은 독일의 신학자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험-표현주의 접근법은 종교와 경험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이것은 “교리들을 내적 감정과 태도 혹은 실존적 정위(定位)에 대한 비 정보적이고 비담론적인 상징들로 해석한다[10].” 이런 논리에 따르면 중

교란 경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언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언제나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종교적 표현을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린드백의 표현처럼, “교리들은 종교적 일치나 혹은 불일치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기초적 감정, 태도, 실존적 정위나 혹은 실행에 있어서 조화나 혹은 갈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11].” 이처럼 종교적 표현을 명제가 아닌 단순한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종교 간의 다양한 차이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린드백은, 대표적 경험-표현주의 신학자인 로너간을 인용하여, 각기 다른 종교들을 공통적인 핵심 경험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들로 이해했다. 종교와 교리가 인간의 보편적 경험의 결과물이라면,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체험한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린드백의 주장을 실제로 적용하자면 “화체설적 개념과 비화체설적 개념은 둘 다 신적 실체에 대한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경험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12].” 더 나아가서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비록 전혀 다르게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13]. 이런 종교와 교리에 대한 이해를 김연희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고 칭하면서, “인간 공통의 경험으로부터의 접근은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으로 인간의 보편적, 실존적, 근본적 믿음(또는 경험)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14].

린드백은 경험-표현주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종교와 교리를 보편적인 핵심 체험, 곧 일차적인 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교리도 객관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이차적인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지적처럼 “종교에 대한 경험-표현주의적 접근은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종교적 사유화와 주관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녔다[15]. 이런 접근법은 모든 역사적인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들까지 순식간에 폐기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이 이론이 종교와 교리를 비정보적이고 비담론적인 상징으로 이해하는 한 교리는 시간과 장소와 심지어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을 지님으로써 교리적 상대주의에 노출된다. 경험-표현적 모델이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동일한 경험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들 사이에서 진리를 분별할 기준이 결여되기 때문에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경험을 한 다음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진실은 아니며 그들 중 어떤 것은 경험에 대한 일종의 오보(誤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명제적 진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험-표현주의 종교이론을 표방하는 로너간을 포함한 신학자들 대다수는 교리의 이해에 있어서 경험적 요소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경험 이외에도 명제주의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16].

### III. 후기자유주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과 문법-규칙의 교리이론

앞의 두 모델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모델로 린드백이 제시한 후기자유주의는 문화-언어의 종교이론과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과연 이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물론 다원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문화-언어의 종교이론

린드백은 포스트모던 상황이 겪는 한계를 극복할 자신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을 언어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과 그것을 극복한 “삶의 양식”(a form of life)에서 그 통찰을 얻어 새로운 신학적 방법론으로 제시하게 되었다[17]. 이런 후기자유주의의 인식론은 “세계의 제한이 언어의 제한”이라고 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진술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18]. 린드백이 종교를 인간의 삶에서 언어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은 그의 후기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를 보고 이해한다면 린드백이 주장한 후기자유주의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종교가 언어라고 한다면 각각의 종교는 나름대로의 기호 체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언어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 린드백은 노암 촘스키(Noram Chomsky)와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로부터 받은 종교의 기호학적 견해를 인간의 종교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언어가 경험을 가능케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9]. 인간의 언어습득은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 린드백은 여기서 랑거(Susanne Langer)로부터 얻은 통찰을 종교 언어에 적용한다[20]. 즉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는 인간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도 없고, 감정을 현실화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언어, 곧 주어진 종교의 상징체계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포함한다[21].”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적 언어에 익숙해진다는 말인데, 이는 린드백의 주장처럼, “이스라엘과 예수의 이야기를 자신과 자신의 세계의 용어들로서 해석하고 경험할 정도로 충분히 학습하는 것을 포함한다[22].” 문화-언어적 접근법은 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해당 종교가 명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the encoded)보다 그 내용을 결정해주는 형식(code)에 더 주목한다[23].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에 관한 진술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이차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 그 이야기가 표방하는 내적 논리와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문법-규칙의 교리이론

##### 2.1 문법(혹은 규율적 원리)

다음은 린드백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에서 파생되었지만 그것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문법으로서의 교리이론인데,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이것을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으로 칭한다[24]. 이 이론에 따르면 종교의 교리는 언어의 문법과도 같은 것이다. 종교가 세상과 자아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언어라

고 한다면 교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과도 같은 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린드백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인식-명제적 이론과 경험-표현적 이론이 가진 이해와 완전하게 구별된다. 기존의 모델들이 신학적 교리를 종교적 진리의 ‘대응’이나 혹은 ‘상징’으로 보았다면 린드백의 모델은 그것을 “규칙”(rules)이나 “규율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s)로 이해하고 있다[25]. 린드백의 교리이론은 언어활동을 종교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이론이다. 교리 자체는 세상, 자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무엇을 배제하며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리는 종교 공동체 내에서 마치 언어에서의 문법과도 같은 ‘규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리는 공동체 내에서 문화를 만들고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면에서 교리는 진리에 대한 명제적 주장이나 상징적 표현보다는 종교 공동체의 삶의 전반을 규정하는 규칙 역할을 한다.

일단 특정 종교 내에서 언어의 문법과도 같은 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들은 명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는 “언어학자나 논법가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들이 언어나 사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명제적 확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26]. 린드백은 여기서 명제적으로 진술된 교리들이 제1순위(first-order)의 명제적 진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제2순위(second-order)의 명제들로서, 언어 외적이거나 혹은 인간 외적 실재에 대한 어떤 확증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7]. 이와 관련하여 송재룡은 이렇게 진술한다. “이 점은 현실 세계의 언어 게임의 상황, 예컨대, 언어 사용 시의 문법이나 특정 스포츠 게임에서의 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어느 경우이든 시간, 문법이나 룰 그 자체는 진리 주장(혹은 허위 주장)을 하지 않은 채로 그런 진리 주장들이 명료하게 단언될 수 있는 유형을 기술하는 기능을 한다[28].” 하나의 규칙으로서의 교리가 갖는 의미는 종교 공동체의 삶 전반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규칙으로서의 교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교리적 명제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칙과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게임에

서 룰이나 사회에서 규범처럼 교리는 특정 종교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삶 전반을 규정한다.

린드백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론이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우찬은 “린드백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의 존재론적 실제 모습에 관한 명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공동체 담론의 규칙으로 이해되었다.”고 주장한다[29]. 린드백의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에 따르면 삼위일체론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교리는 더 이상 진리의 상용이론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즉 린드백의 교리이론은 니케아 신조의 삼위일체론을 제2순위의 명제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제이 W. 리찰즈(Jay W. Richards)가 말한 것처럼 “담론에 관한 담론”(talk about talk)으로 본다[30].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 용어의 명제적 혹은 경험적 의미를 파악하는 대신 해당 종교에서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규칙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린드백의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에 따르면 언어나 개념은 변할지라도 규율적 원리로서의 문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교들이 서로 만나도 그 만남 가운데서 경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론이 가르치는 바이다. 린드백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종교의 신자들을 자신들의 전통을 정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도록 돕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언어에 더 능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31].” 여기에 개종이나 그들이 가진 문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다. 종교들이 서로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지 문법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즉 종교들이 서로와의 만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문법이 아니라 문법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다. 규칙이론은 인간이 타종교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한인철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경험은 언어로부터 비롯되고 언어는 문법에 기초하는데, 문법

이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2]. 문법을 배운다는 말은 해당 종교 전통의 경험을 습득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종교 경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린드백의 문화-언어 이론에 따르면 이런 개종의 경험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 2.2 체계내적 진리(intrasystematic truth)

린드백의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그의 체계내적 진리관이다. '체계내적 진리관'이란 특정 종교는 해당 종교의 체계 내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다시 '본문내적 해석학'(intratextuality)에 기초하고 있다. 본문내적 해석학이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처럼 철학, 문화, 과학과 같이 성경외적인(extrabiblical) 것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 내적 의미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33]. 예를 들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텍스트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체계내적 진리란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의미 체계 내에서의 진리를 가리킨다. 체계내적 진리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린드백의 "존재론적 진리"와 "체계내적 진리" 사이의 구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존재론적 진리란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식-명제적 접근으로서 종교의 교리적 명제가 언어 밖의 객관적 실재와 일치할 때 그것이 진리로 간주된다. 하지만 체계내적 진리는 그리스도교의 진리 체계 내에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적 일관성 혹은 정합성(coherence)에 해당한다.

린드백이 주장하는 체계내적 진리가 일관성을 지닌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것이 범주적 진리(categorical truth)여야 한다. 명제주의에서 교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객관적 실재와 존재론적 일치성을 보여야 하고, 경험-표현주의에서는 경험적 표현들이 상징적 효율성을 드러내야 하지만 문화-언어 이론에서 진리는 특정한 범주 안에서 진리 여부가 결정된다. 린드백은 범주(categories)를 '문법' 혹은 '게임의 법칙'이란 개념과 번갈아 사용함으로써[34], 다른 범주 안에 있는 종교들끼

리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를 모순적인 것으로 본다.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들 범주들의 적절성을 반드시 따져보는 것이다. 종교들이 동일 범주, 곧 동일한 문법 체계 속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고, 그 종교가 범주적으로 진리임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 범주에 있지 않은 명제들은 서로 비교할 수도 진리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린드백은 이 범주적 진리관을 설명하기 위해 동양 불교의 '니르바나'(Nirvana)란 개념을 예로 든다. 린드백은 불교의 니르바나를 기독교의 구원 개념과 비교하면서 "진리에 대한 비교불가능성의 개념"(incommensurable notions of truth)을 소개한다. 종교의 진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범주나 게임의 규칙을 사용하는 것은 그 종교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35].

린드백의 체계내적 진리와 범주적 진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들 사이의 진리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종말론적 전망을 내놓는다. 린드백은 비록 모두가 자신의 종교 언어 속에 살지만 최후 죽음의 순간에 "모든 인간이 복음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대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36]. 이때 그리스도인은 물론 타 종교인들도 구원을 경험하는 방식이 동일한데,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fides ex auditu)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혹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37]. 즉 어떤 종교 언어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란 사실이다.

둘째로 체계내적 진리가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주장이 실제 삶과 행동을 구성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리가 실제 삶에서 실천적인 결과를 낳고 또 기독교의 전체적인 전망과의 부합성을 지닐 때 진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의 진리 여부는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과 분리된 채 판단될 수 없다.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상황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실행적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교리는 그 진실성이 입증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입장은 지극히 실용

주의적이다. 즉 기독교 교리가 진리임을 입증하려면 교리와 그 교리를 실행에 옮기고 내면화함으로써 삶의 부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대신 성경이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텍스트가 세계를 흡수하고 있지, 세계가 텍스트를 흡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다[38]. 이것은 어떤 종교의 진술이 진리로 취급되는 이유가 그 진술이 언어 바깥의 실재에 대응하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이 그 진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드백은 “어떤 진술이 체계내적 진리가 아니고서는 존재론적으로 진실일 수 없지만, 체계내적 진리는 존재론적 진리 없이도 가능하다[39].”고 주장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존재론적 진리의 실존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그가 비록 이처럼 실용주의적 진리론을 주장하지만 명제적, 존재론적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실용주의적 진리관에 기초한 범주적 진리관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교리가 존재론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존재론적 진리가 성립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그것이 실행적으로 충족되었을 때이다. 즉 린드백의 문화-언어 모델은 명제적 진리를 체계내적 진리에 비해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 IV. 문화-언어적 접근에 대한 평가

린드백의 문화-언어적 접근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의 틈바구니에서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진지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의 이론은 분명히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잡한 종교적 갈등 상황에 대처할 중요한 통찰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 역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먼저 린드백의 종교와 교리에 관한 이론이 가진 긍정적인 기여를 다룬 다음 그것이 가진 한계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긍정적인 기여

첫째, 린드백의 문화-언어적 종교이론이 끼친 긍정적 기여는 각각의 종교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열린 자세로써 타 종교와 대화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게 했다는 점이다. 종교에 대한 문화-언어적 접근은 종교 이해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서 자신의 종교와 타인의 종교를 옹고 그들의 관점 대신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는 타 종교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타 종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종교적 언어를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대신 오히려 스스로 그들과의 만남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 린드백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이 가진 강점이다. 이런 태도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에서 모든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태도이다. 다시 말해서, 타 종교에 대해 배타주의적 태도로 일관되었던 기독교나 여타의 종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대결보다는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린드백의 종교이론이 종교계에 끼친 가장 큰 기여임에 틀림없다.

둘째, 린드백의 종교 및 교리이론은 종교적 진리가 존재론적 진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진리의 실행성을 강조하는데, 이점 역시 긍정적인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종교가 진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그것의 실행성인데, 이는 기독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이 시대를 위한 신선한 자극이 된다. 오늘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린드백의 종교이론이 진리의 실행적 부합성을 강조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하나의 종교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실제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종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린드백의 종교이론이 제시하는 종교의 실행성에 대한 강조는 특별히 오늘날의 종교적 상황에서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셋째, 린드백의 종교 및 교리이론이 제시하는 체계내

적 진리관과 그에 따른 본문내적 해석(intratextuality)은 다시 한 번 성경을 기독교 신학의 텍스트로 삼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포스트모던적 신학 접근법들은 성경을 신적 계시의 최고요 유일한 텍스트로 보지 않는 강한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문내적 해석학은 경전이나 텍스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런 해석학에 근거하여, 이우찬은 “신자가 경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이 신자를 해석한다[40].”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즉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권위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볼 때, 체계내적 진리관은 텍스트의 권위를 인정하는 해석학을 제시함으로써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한계점

첫째, 본문내적 해석학이 성경을 기독교의 권위 있는 텍스트로 삼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성경문자주의(Biblicism)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1]. 그래서 로널드 티만(Ronald F. Thieman)은 린드백의 신학이 하나님 대신 텍스트 자체에 대한 담론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졌다고 지적한다[42]. 뿐만 아니라, 본문내적 해석학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은, 물론 인식-명제주의와는 구별되지만, 본문 자체에 진리가 들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리엔 모야에르트(Marianne Moyaert)의 지적처럼 본문을 대하는 “독자의 공헌을 최소화”하는데[43], 이는 포스트모던의 사상적 경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처럼 린드백의 본문내적 해석학이 성경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토대를 둔 해석학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본문 자체보다는 문화나 교회의 해석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린드백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표준인 성경은 교회에 의해 사용된 성경, 곧 문화적으로 꼴 지워진 성경이었지 텍스트자체가 아니었다. 즉 린드백은 텍스트자체의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밴후저는 문화-언어 모델과

사촌적인 자신의 정경-언어적(canonical-linguistic) 모델을 소개하면서, “교회 삶의 최고 표준은 성경 자체, 곧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성경이지 교회에 의해 사용된 성경이 아니다[44].”라고 주장한다. 밴후저의 이런 지적이 옳은 것이라면 린드백의 본문내적 해석학은 자기 모순적인데, 이는 그의 이론이 텍스트자체를 가장 중요한 권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에 의해 해석된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본문자체보다 교회의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둘째, 앨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가 지적한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를 단순한 사회적 현상인 문화와 언어에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며, 이런 행위를 통해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는 진리에 대한 명제적 주장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는 명제적 진술보다는 ‘내적 일관성’을 더욱 중요하게 취급하게 됨으로써 진리를 내적 일관성으로 격하시킨 격이 되었다[45]. 린드백도 종교적 주장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실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진리의 부합성 혹은 내적 일관성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본 것이 문제였다.

셋째, 인식론적 부분에 있어서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는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떤 언어는 우수하고 다른 언어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종교도 우열을 비교해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 린드백의 종교론의 핵심이라면 이것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암시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진리이고, 불교의 진리는 불교 신자에게만 진리이다. 모든 종교적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면 결국 진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서로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비교 불가능성의 개념을 린드백 자신이 도입한 것을 봐도 이런 상대성이 그의 이론 속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종교적 명제도 거부하는 그의 반정초주의적 신학(antifoundational theology)은 결국 모든 진리 주장들 판단할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

넷째, 언어 습득이 종교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린드벡에게 있어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주어진 종교의 언어와 상징적 체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언어는 종교적 경험을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언어의 본질적 중요성을 역설했다[46]. 하지만 이것은 말을 못 배운 사람은 신앙조차 불가능한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됨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신학적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47].

다섯째,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나 그에 반하는 불신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린드벡의 종말론적 전망은 결국 그의 신학이 극복하기 위해 떠났던 원점으로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구원론적 측면에서 볼 때, 체계내적 진리를 고수하는 그의 후기자유주의도 결국 기독교적 체계를 통해 재해석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포괄주의적 입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그의 문화-언어적 접근법은 보수와 자유주의를 넘어 다원주의까지 극복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명제주의나 포괄주의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낸다[48].

## V. 결론

린드벡의 종교 및 교리이론은 인식-명제주의와 경험-표현주의 모델이 가진 한계는 물론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까지 극복하고 종교적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는 의욕적인 시도이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고뇌어린 탐구로서 실제로 여러 신학적 기여를 남겼다. 하지만 이 이론이 제3의 대안이 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닌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가 남긴 긍정적인 기여를 보자. 첫째, 종교를 언어로 이해한 그의 접근은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을 가능케 했다. 둘째, 진리의 실행성을 강조한 점은 종교계에 신선한 충격이다. 셋째, 체계내적 진리관과 본문내적 해석학은 성경을 신학적 텍스트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기여들에도 불구하고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근본적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언어적 접근법이 본문내적 해석학을 통해 텍스트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해석 과정에서 본문자체보다는 교회의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진다. 둘째, 언어 바깥의 실재를 드러내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진리의 부합성 혹은 내적 일관성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진리를 내적 일관성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셋째, 종교를 언어로 볼 경우 모든 종교는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극단적 상대주의의 위험성을 암시한다. 넷째, 언어가 종교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신앙적 엘리트주의를 조장한다. 다섯째,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그가 극복하려 했던 원점인 명제주의 혹은 포괄주의로의 회귀를 암시한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연구자는 문화-언어의 종교이론과 문법-규칙의 교리이론으로 대표되는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가 몇몇 긍정적인 기여와 미래적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는 물론 다원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지녔음을 지적하며 본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이우찬,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신학 연구”, 한국개혁신학, 제18권, pp.249-270, 2005.
- [2] Gavin D'Costa, “Christian Theology and Other Faiths,” in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ology, ed. Peter Byrne and Leslie Houlden, Routledge, 1995.
- [3] Richard A. Pruitt, “Rethinking Postliberal Theology: Comparing and Contrasting Lindbeck and Vanhoozer,”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Vol.36, No.2, pp.161-175, 2012.

- [4] Lindbeck, George A.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n Postliberal Age*. Westminster, 1984.
- [5] Ibid.
- [6] 한인철, “린드벡의 종교다원주의”, *세계의 신학*, 제96권, pp.181-201, 2002.
- [7] 위의 논문.
- [8] 위의 논문.
- [9] Paul Horwich, “Truth,” *The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ed. Robert Aud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10] Ibid.
- [11] Ibid.
- [12] Ibid.
- [13] 김연희,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신학”, *신학전망*, 제172권, pp.2-34, 2011.
- [14]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 [15] Ibid.
- [16] 김연희,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신학”, *신학전망*, 제172권, pp.2-34, 2011.
- [17] 정승태, “후기자유주의 신학의 해석학적 한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0권, pp.75-108, 2001.
- [18] 위의 논문
- [19]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 [20] Susanne Langer, *Philosophy in a New Key*, Pelican Books, 1948.
- [21]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 [22] Ibid.
- [23] Ibid.
- [24] Bradford E. Hinze, “Postliberal Theology and Roman Catholic Theology,” *Religious Studies Review*, Vol.21, No.4, 1995.
- [25]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 [26] Ibid.
- [27] Ibid.
- [28] 송재룡, “문화-언어적 종교 이해의 종교사회학적 함의”, *현상과인식*, pp.79-99, 2007.
- [29] 이우찬,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신학 연구”, *한국개혁신학*, 제18권, pp.249-270, 2005.
- [30] Jay W. Richards, “Truth and Meaning in George Lindbeck’s *The Nature and Doctrine*,” *Religious Studies*, Vol.33, pp.33-53, 1997.
- [31]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 [32] 한인철, “린드벡의 종교다원주의”, *세계의 신학*, 제96권, pp.181-201, 2002.
- [33] 김연희,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신학”, *신학전망*, 제172권, pp.2-34, 2011.
- [34] 위의 논문.
- [35] 위의 논문.
- [36] 위의 논문.
- [37] 위의 논문.
- [38] 위의 논문.
- [39] 위의 논문.
- [40] 이우찬,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신학 연구”, *한국개혁신학*, 제18권, pp.249-270, 2005.
- [41] James Callahan, “The Bible Says: Evangelical and Postliberal Biblicism,”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Vol.36 No.2, pp.161-175, 2012.
- [42] Ronald F. Thiemann, “Response to George Lindbeck,” *Theology Today*, Vol.43, 1986.
- [43] Marianne Moyaert, “Postliberalism, Religious Diversity, and Interreligious Dialogue,”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Vol.47, No.1, pp.64-86, 2012.
- [44] Kevin J.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 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Westminster John Knox, 2005.
- [45] N. T.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Vol.1, Fortress, 1992.
- [46]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 [47] 손호현, “하나님의 텍스트성: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종교론에 대한 비판”, *한국조직신학회*, 제35집, pp.7-38, 2013.
- [48] James M. Gustafson, “Just What is ‘Postliberal’ Theology?,” *Christian Century*, pp.353-355, 1999.

저 자 소 개

제 해 중(Haejong Je)

정회원



- 1994년 2월 : Andrews University (M.Div. 신학 석사)
- 2009년 5월 : Andrews University (Ph.D. 조직신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종교, 언어, 문화 콘텐츠